

# HOUSING NEWS



온빛건설, 신창건설에 피인수



대우건설, 신개념 주택 문화관 선배



삼성물산, '환경보고서' 발간



저소득 가구 사회 봉사 활동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객 평가단 '힐스스타일러' 운영

## 효성, 진흥기업 인수

효성이 제3차 배정 유상 증자 참여와 구주 인수 방식으로 진흥기업(대표이사 전홍규) 주식 1억 411만 3000주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은 지난 1959년에 설립된 중견 건설 업체로 '더 루벤스' (아파트)와 '마제스 타워' (주상복합)라는 브랜드로 주택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5600억 원으로 시공 능력 평가 45위를 기록했으며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공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택 사업이 사업 포트폴리오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M&A는 중공업, 섬유, 타이어코드와 함께 건설업을 그룹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온빛건설, 신창건설에 피인수

주택 사업 전문 업체인 중견 건설사 신창건설이 온빛건설에 대한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온빛건설(옛 한보건설)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종합 건설 업체로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121위 업체다. 주로 토목·플랜트 공사를 해왔으며 인도네시아, 요르단 등지의 해외 공사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신창건설은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국내 플랜트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온빛건설을 인수했다.

## 한신공영, 신임 사장 황무성 씨 선임

한신공영이 황무성 전 동부건설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1950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한 황무성 신임 사장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LG건설(현 GS건설), 동부건설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30년 이상 건설 업계에 몸담아온 전문 CEO 출신이다.

## 한진중공업 건설 부문, 신임 사장에 송화영 씨

한진중공업그룹이 지난 2월 13일, 한진중공업 건설 부문 사장에 송화영 한국종합기술 사장을, 한국종합기술 사장에 이강록 한진중공업 건설 부문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송화영 사장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종합기술 부사장·사장을 역임했으며, 이강록 사장은 인하대 토목공학과를 나온 후 건설 부문 사장을 역임했다.

## 대우건설, 신개념 주택 문화관 선배

대우건설이 지난 2월 18일,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 출시 5주년을 맞아 고품격 주택 문화관인 '푸르지오 밸리(PRUGIO VALLEY)'를 개관했다. 대우 건설은 푸르지오 밸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대 고객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역 사거리와 뽕뽕 사거리 사이(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밸리는 연면적 5306㎡ 규모의 4층 건물로, 1층은 로비 및 리셉션 데스크, 2~3층은 푸르지오가 추구하는 주거 생활 공간을 전시하며, 4층은 분양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된다.

## 삼성물산, '환경 보고서' 발간, 저소득 가구 사회 봉사 활동

삼성물산 건설 부문(사장 이상대)이 건설 업계 처음으로 환경 경영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힌 '환경 보고서'를 발간했다. 삼성물산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산하 기관인 GRI 기준이 정하는 환경 지표를 적용하고, 전문 검증 기관으로부터 보고서 내용 및 온실 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3차 검증을 수행해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 삼성건설이 개발해 에너지 절감에 효과를 거둔 지열 시스템과 이중 외피 시스템 등 신공법이 소개돼 있다. 또 건설 기계,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도 산정, 수록해 건설 업계가 온실 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따뜻한 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총 100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 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해줬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해 9월, 환경 단체인 환경정의와 공동으로 소년 소녀 기장, 독거 노인, 장애인 세대 등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상태를 점검한 뒤 서울 70가구, 원주 30가구 등 총 100가구를 선정, 11월부터 집중적인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을 벌였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객 평가단 '힐스스타일러' 운영

힐스테이트 출시 이후 '주거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의 감성적 공감대를 넓혀온 현대건설(사장 이종수)이 고객들의 의견을 힐스테이트에 반영하기 위해 고객 평가단 '힐스스타일러(Hill's Styler)'를 발족한다. 이번에 발족하는 힐스스타일러는 기존의 아파트 고객 평가단이 해당 아파트 거주 고객만을 대상으로 선발했던 것에 비해 모집 대상을 아파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모든 기층 여성으로 대폭 확대했다.